

지주사 8개월... 조현준의 효성이 달라졌다

(효성 회장)

기업 돋보기



지주사 안정 국면... 이익의 질 ↑
작년 4분기 영업이익 1039.1% 증가
효성티앤씨 등 자회사도 실적 好
중공업·화학 등 미래먹거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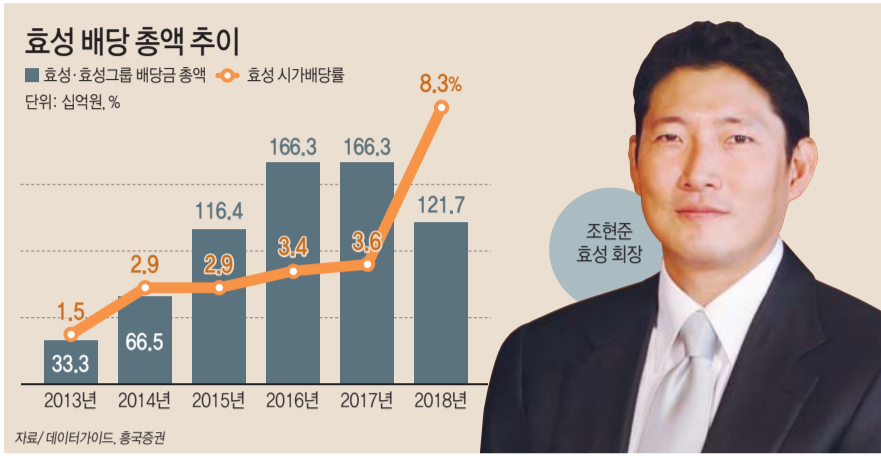
“기업의 역할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업가의 ‘업(業)’은 사회와 국민을 위해 행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기업 경쟁력의 본질은 ‘기술’에서 나온다.”

은백색 나일론 실을 생산하는 효성. 이 회사는 반세기 만에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다수 보유하며 섬유·소재 부문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밑바탕에는 창업 1세대인 조흥제 회장의 도전 DNA와 아들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기술 경영철학’, 조현준 효성 회장의 ‘VOC(Voice of Customer)’를 통한 고객중심경영,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 주효했다.

자본시장에서도 조 회장이 항해의 키를 쥐고 후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가파르게 성장하는 지주사 효성과 계열사를 주목하고 있다.

◆지주사 효성, 얼굴만 바뀌게 아니다

지난해 6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태어난 효성. 조현준 회장이 키를 잡은 후 이익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다.



조현준 효성 회장

지난해 4분기 실적(연결기준)은 매출 8576억원, 영업이익 6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 1039.1% 증가한 규모다. 당기순이익은 1194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올해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40% 웃도는 성적을 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지난해 인적분할에 따른 1회성 연결조정 350억원을 차감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195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 첫해 효성 별도 영업이익은 227억원 손실을 기록했으나 브랜드·임대료·건설 등 지주 수익 증가와 분할 관련 비용 감소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했다.

달달아 투자자들도 신바람이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주당 배당금을 4000~5000원으로 가정할 때 배당수익률은 6.7~8.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진원 연구원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최대배당가능이익)은 8100억원대로, 배당총액 813억원(주당 배당금 4000원 기준) 대비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연결 계열사 배당수입과 임대료, 브랜드로알

티, 유동화 예상 자산 등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Cash flow)을 고려할 때 약 50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수 년 간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효성티앤에스는 미국 및 러시아 은행권의 고부가 제품 판매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공덕경우개발은 연간 약 5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익도 침단을 달린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 각각 세계 1위 제품인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지주사 전환 이후 효성의 모태(동양나이론)인 섬유 사업을 승계한 사업 자회사다. 고부가가치 스판덱스 원사 브랜드인 ‘크레오라’는 지난해에도 글로벌 1위 자리를 확고히 하며 실적을 이끌고 있다. 스판덱스 외에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T/C·타이어보강재, 매출 비중 8%)와 NF3(산업용 가스, 1%)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효성티앤씨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5% 증가한 2904

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 한상원 연구원은 “스판덱스 시장(연평균 수요 증가 9% 내외)에서 1위의 자리를 더 확고히 할 것”이라며 “2020년 글로벌 점유율 40% 가정시 매년 15%(연평균+4~5만톤)의 증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백영찬 연구원은 “스판덱스 중국 신증설이 일부 취소되면서 2019년 상반기 수급밸런스는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7.1%나 줄어든 효성첨단소재도 지속 성장이 예고된다.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중국 청도 법인 구조조정과 스틸코드 사업의 재고 처리 비용 등 15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KB증권은 효성첨단소재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조1000억원, 1822억원(OPM 5.9%)으로 2018년 대비 각각 3.8%, 2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영찬 연구원은 “원료가격 하락을 바탕으로 타이어보강재·산업용사·인테리어 및 기타 실적 모두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키움증권 이동욱 연구원은 “지속적인 세계 타이어코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베트남 중부 광남성에 약 1억5200만 달러를 투자해 폴리에스터·나일론 타이어코드 플랜트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 플랜트는 오는 2020년 2분기에 상업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점유율 확대와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효성중공업·효성화학, 증익 사이클 진입 '불매'

효성의 수출 먹거리로 중공업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효성의 중공업사업 부문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등 다양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해 왔다.

IBK투자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2019년 효성중공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9000억원(전년대비 10%), 영업이익 1560억원(47%), 영업이익률 4.0%(1.0%포인트)로 개선된 실적이 기대된다”면서 “중공업부문은 미국항 반덤핑 비관세 품목 판매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인도 공장 정상화, 기존 시장(차단기, 초고압 변압기)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으로 수주 증가 및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링턴플레이스’로 대표되는 건축사업도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철저한 입지 분석을 통해서 분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에 집중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성이 우수한 서울 사업장인 청량리역(아파트 220세대), 흥제역(1116세대), 태릉(1308세대)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워킹아웃을 졸업한 진흥기업도 연결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이윤상 연구원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해 국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의 절반 가량을 공급해 왔다”면서 “ESS(에너지저장시스템)도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폴리프로필렌(PP),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삼불화 질소(NF3) 등 3대 주요사업 부문이 향후 2~3년 간 증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펀드 시총 비중 4.8% 2년8개월 만에 최고

자산운용사 영향력 커져

펀드가 보유한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로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4.8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말(4.93%) 이후 2년8개월만에 최고치다.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총 비중은 ‘펀드 붐’이 일었던 2009년 3월 말 9.67%까지 치솟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하향 곡선을 나타내 2017년 5월 말에는 3.90%까지 떨어졌다.

그 뒤 반등하기 시작해 2017년 말 4.27%, 지난해 말 4.79%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 2017년 코스피가 6년 만에 박스권을 탈출해 강세장을 펼치자 간접 투자자금이 일부 펀드로 유입된 데 이어 작년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영향이다.

실제로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2016년 말 74조원에서 2017년 말 78조원, 지난해 말 85조원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한편 올해 1월 말 현재 펀드의 채권 편입 비중은 8.62%로 지난해 8월 말(8.86%)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그레이트 컴퍼니’ 선언... “1조 클럽 재진입”

(영업이익)

모든 이해관계자 부가가치 극대화
올해 수주 24.1조·매출 17조 목표
투자 확대 등 해외 수주경쟁력 강화

현대건설이 2019년 ‘그레이트 컴퍼니’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해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울러 올해 연간 실적 목표로는 수주 24조1000억원, 매출 17조원, 영업이익 1조원이다.

◆그레이트 컴퍼니 ‘3대 핵심가치’ 제시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10일 “그레이트 컴퍼니(Great Company)를 구축해 진정한 건설 명가(名家)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열한 국내의 환경 속에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안정적 실적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 역량을 갖춘 ‘2019 그레이트 컴퍼니 현대건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레이트 컴퍼니’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가치로는 ▲그레이트 피플(Great People) ▲그레이트 컬처((Great Culture) ▲그레이트 벨류(Great Value)를 제시했다.

우선 현대건설의 임직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전문지식을 함양하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

/현대건설

고 책임감, 실행력, 능동적 선행력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자기완성형 인재(그레이트 피플)’가 되자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임직원의 의미 있는 실패를 용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선진 기업문화(그레이트 컬처)를 구축해 글로벌 탑 티어(TOP-TIER)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와 사회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경영(Great Value)과 임직원 윤리식을 함양하고 윤리적 기준에 근거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현대건설은 경쟁력 제고, 선

진 기업문화 구축, 준법·투명경영으로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현대건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3제로(중대재해 ZERO, 환경 페널티 ZERO, 중대품질 문제 ZERO)경영’ 및 협력사와 함께하는 경영도 지속 실천할 예정이다.

◆올 ‘영업이익 1조원’ 목표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24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대건설은 해외 사업 부문에서 시장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우위공종 집중 ▲포트폴리오 다양화 ▲투자사업 확대 ▲전략적 제휴 등으로 해외 시장 수주 경

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술·수행 경쟁력 강화 등 설계·조달·시공(EPC) 기본 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공사를 수주하기로 했다.

중동 및 아시아 등 경쟁력 보유지역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가스·복합화력·매립, 항만, 송·변전 등 경쟁력 우위 공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미주·아프리카 지역 등 신시장 개척과 데이터 센터 등 신사업 추진으로 포트폴리오 다양화도 추진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도로·교량 등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합작투자사업)과 복합화력·수력발전소 등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민자발전사업) 투자사업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올해 이라크, 알제리, 우즈베크 등 국가에서 대규모 해외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선 사회간접자본 시설(SOC) 비중을 확대해 시장 우위를 선점할 방침이다.

연간 매출 목표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7조원이다.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공사,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 해외 대형 공사가 본격화되고 국내 주택 매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이익도 매출 성장과 해외부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1조원을 달성해 ‘1조 클럽’에 재진입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채신화 기자 csh9101@